

##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Shelters for Elderly Abuse Victims Using AHP

Kum Ju Kwon<sup>1#</sup>, Hye Sun Kim<sup>2+</sup>

<sup>1</sup>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Cyber University, 60, Solmae-ro 49-gil, Gangbuk-gu, Seoul, Korea

<sup>2</sup>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346, Hwang-jo-gil, Dogye-eup, Samcheok, Gangwon-do, Korea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esent the most appropriate shelter model for the abused elderly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operation regulations and the status of shelters for the abused elderly in Korea. We analyzed the interviews of shelter staff as well as the elderly who had experiences with the shelters based on the qualitative and survey data from 17 shelters. We derived four models, including 'Independent Shelter Based on Case Management', 'Consignment Shelter Based on Case Management', 'Independent Shelter Based on Caring', and 'Consignment Shelter Based on Caring'. Furthermore, in order to determine the most suitable model, we used the AHP technique to ask 15 experts who had worked or studied on the abused elderly to evaluate the four shelter models by effectiveness, efficiency, expertise, practicability, and overall. Finally, the 'Consignment Shelter Based on Case Management' model was selected as the most proper model. This study is meaningful in clar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a shelter for the abused elderly and structuring systematically the functions to be performed.

**Key words:** elder abuse, shelter, elder protection agency, AHP

### 1. 서론

우리사회에서 '초고령'이란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2018년 8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14.2%로 고령사회의 기준을 넘어섰고, 기준선이 7%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7년이었으며, 향후 7~8년 내에는 기준선이 20%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Bang, 2018). 이와 같은 노인인구 수의 증가는 과거와 다른 사회문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특히 경로사상을

중히 여겼던 우리사회에서 노인학대 수는 지난 3년 동안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으로 20% 이상 증가하여(Ministry Health and Welfare, 2017), 학대와 폭력의 피해 대상자가 아동과 여성일 것이라는 통념도 깨지고 있다.

학대와 폭력에 대한 보호개입도 그러하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와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대상을 아동과 성인으로 분리하여 보호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노인인구 수의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에 관심을 가지면서 2004년부터 법적으로 60

<sup>#</sup> The 1st author: Kum Ju Kwon, Tel. +82-2-944-5018, Fax. +82-2-980-2222, e-mail. [kkj@iscu.ac.kr](mailto:kkj@iscu.ac.kr)

<sup>+</sup> Corresponding author: Hye Sun Kim, Tel. +82-33-540-3352, Fax. +82-33-540-3359, e-mail. [welcome-kim@kangwon.ac.kr](mailto:welcome-kim@kangwon.ac.kr)

세 이상을 학대피해노인으로 구분하여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즉 60세 미만의 성인은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60세 이상의 성인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하 필요에 따라 쉼터로 표기함)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 중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근래의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면서 동법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sup>2)</sup>에 의거하여 2011년에 16개소 광역 시·도에서 임의시설로 설치하여 최근까지 운영해 왔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달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최근까지 임의시설이었고, 2017년에서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법정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 제39조의19)로 제도화된 것이다.

따라서 법정시설이 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기존 체계의 점검을 통해 명확한 역할규정, 구체적인 운영방향 등을 통해 학대피해 노인이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즉 피난처, 은신처, 보호소와 같은 단순한 의미의 쉼터(Lee, 2012)를 넘어, 노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대피해노인이 정상생활로 회복하고 삶의 여러 상황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Lee, 2002) 새로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기존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 매우 미흡했다. 특히 국내 전자저널에서 ‘학대노인’과 ‘쉼터’를 연관하여 검색해 보면, 연구결과는 전무했다(www.riss.kr).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자들은 먼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규정 및 현황 등의 기존 자료를 검토하고, 쉼터 3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종사자와 인터뷰를 실시·분석하였다. 그리고 17개소 쉼터 대상의 설문조사와 입소 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는 등 현장 중심 연구방법을 통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모델(안)의 주요 논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4개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모델(안)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사전작업에 근거한 4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모델(안)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AHP 기법은 문제해결에서 의사결정자를 지원하도록 고안된 분석방법으로, 의사결정자가 각 기준에 따라 의사결정 대상이 되는 대안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여 기술하고 이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기에 최종 모델을 선정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다(Song & Lee, 2013). 본 연구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모델을 제시하고, 법정시설로 거듭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실증적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대한 조사

###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기관자료 연구

####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규정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2011년 16개소 광역 시·도에 설치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산하로 운영하였으나 법적 시설은 아니었다. 당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5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호(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따른 학대받은 노

1)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7. 30. 시행)으로 2018년 현재 31개소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노인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고, 18개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운영중이다(www.noinboho.org).

2)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임의시설로 설치되고 있다.

인의 단기보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제1호(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따른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였다.

2017년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의 신설(2017.3.14.)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임의시설에서 법정시설로 바뀌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피해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할 책임이 있고, 이 법의 근거에 의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 중 하나가 되었다. 법에 제시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기능은 학대피해노인의 숙식과 쉼터생활의 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학대 재발 방지 및 원가정 회복을 위한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The Aged Welfare Act, 201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2018년 현재 18개소이며, 지역은 경기도와 경상북도 2개소(1개소는 지자체 예산으로만 운영)를 제외하고 시·도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www.noinboho.org).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초기 설치 시 임대료를 보조받아 전세 또는 월세 등의 임차형태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운영법인, 지자체 또는 LH공사 등의 지원으로 영구 또는 장기임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시설유형은 다세대(공용, 다가구)주택이 대다수이며 단독주택도 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규모는 입소정원(5명 이상 9명 이하)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이며, 시설구조는 대부분 침실이 2~3개, 화장실(세탁실 겸용) 1~2개, 프로그램실 또는 상담·교육실 1개(거실인 경우도 있음), 사무실 1개 정도이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인력 기준은 쉼터의 장(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장이 겸임 가능), 중간관리자(노인보호전문기관 중간

관리자가 겸임 가능),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1인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와 겸임 가능), 요양보호사 3인으로 되어 있다(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Aged Welfare Act, 201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인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겸임을 허용하고 있어 쉼터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1인과 요양보호사 3인이 근무하고 있다.

## 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서비스 내용 및 입소노인 현황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는 만 60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이며,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학대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입소에 동의할 때 가능하다. 입소가 결정되면 가장 먼저 입소전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입소생활을 한다.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하며, 단 학대재발 등으로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 또는 퇴소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때에는 시·도 승인을 거쳐 재입소가 가능하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입소한 노인에게 숙식 및 생활지원뿐 아니라, 학대로부터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한 심리치유 서비스, 의료비 지원, 법률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이외에도 학대 부양자 교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 제공, 퇴소 후 사후 모니터링, 퇴소 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가족 복귀 또는 타 자녀와의 동거, 시설입소 등을 지원,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노인 및 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학대피해노인 담당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 즉, 학대피해노인의 주 사례관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어 학대피해노인의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과정에서 주된 계획과 개입은 노인보

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보호 및 심신 안정을 위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매년 발간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Ministry Health and Welfare, 2014~2016)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입소한 노인은 2014년에 505명, 2016년 559명, 2016년 552명이었다. 성별은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6년 기준으로 남자는 105명(19.0%), 여자는 447명(81.0%)이었다. 쉼터 입소노인의 연령 현황을 2016년 552명을 기준으로 보면, 75~79세 이하(22.3%)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70~74세 이하(20.3%), 65~69세 이하(18.7%), 80~84세 이하(18.1%)도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79세를 기준으로 볼 때 79세 이하 노인은 68.7%이다. 입소노인 학대유형은 정서(41.3%), 신체(36.0%), 경제(9.0%) 순이며, 입소노인수와 학대유형 수를 비교할 때 1인당 평균 1.85개의 학대유형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6년 기준으로 퇴소 후 거주현황은 원가정으로 복귀(54.0%)가 가장 많으며, 시설입소(12.3%), 타 부양자 가정(8.3%), 별도 공간 마련(8.0%)순이었다.

## 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실증연구

###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종사자 인터뷰 및 분석

2017년 3월부터 약 3주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7개소 중 경기도, 강원도, 영남권 등 3개소 쉼터를 현장 방문하였다. 3개소 쉼터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 의도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으로 결정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중간관리자(일부 관장 포함) 및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하여 총 7명이었으며, 사전 전화 통화를 비롯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쉼터 관련하여 입소, 운영, 프로그램, 인력,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에 대해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질문하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녹취하여 내용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참여자는 운영 관련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종속관계가 아니라 예산 및 운영 등의 분리로 독립운영과 실질적인 협력관계 이루어져야 하며, 쉼터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필요하다. 입소 기준 명확화 관련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 노인을 선 검사한 후에 쉼터에 입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요양병원을 지정하여 선(先)검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인 경우 쉼터 입소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인력구조 관련하여 현재 구조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모호하여 소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학대노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상담과 사례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학대 노인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의 정서적 지지 제공의 핵심 인력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역할과 차별화된 쉼터의 요양보호사 역할이 마련되어야 하며 통일된 근무형태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고, 조리사를 별도로 채용하여 요양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관련해서 외부 강사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해야 하고, 입소 노인의 정서적 지지를 위해서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라 상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직원 역량이 필요하며,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프로그램과 입소노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방법을 적용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전화번호, 장소 등에 대한 비밀보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 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조사

조사 당시 운영되고 있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7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2017. 3. 24 ~ 4. 5 동안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인력 및 역할, 입소노인, 서비스, 운영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 객관식 질문과 주관식 질문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응답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중

간관리자를 주작성자로 하되, 쉼터의 사회복지사와 협의하여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고, 수거된 자료는 빈도분석과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과 관련하여, 중간관리자의 쉼터 투여시간은 주당 평균 9.44시간으로, 17개소 중 10개소의 중간관리자는 쉼터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쉼터에 중간관리자를 독립 배치(현재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중간관리자가 겸직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회복지사 인력 관련해서는 17개 쉼터 중 8개 쉼터에서 사회복지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사회복지사 한 명이 진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행정관련 업무여서 실제 입소노인의 프로그램과 상담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는 식사준비 부담이 높고, 유연한 근무교대 및 휴가 사용이 어려워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외에 11개소에서 조리사, 간호(조무)사, 주말 담당 근무자 등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둘째, 입소노인 생활과 관련하여, 쉼터에 입소한 노인은 학대기간이 길고 학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큰 편이며 가족 및 주변 자원은 미흡했으나, 입소노인은 학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퇴소 후 안정적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쉼터생활 동안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 퇴소계획에 집중하는 개별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쉼터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단계별 과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입소가 결정되면 구체적인 생활 안내 및 종사자와 관계형성에 주력하며, 입소 초기에는 심리적 불안 및 낯선 쉼터 생활에 적응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개인적인 공간 제공 필요하고, 입소 중반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되는 효과적 사례관리를 위해 개별적인 관찰 및 케어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입소후반에는 퇴소계획에 따른 최소준비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셋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용기간은 현 체제가 바람직하나 특별한 사유

인 경우에는 이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설 환경의 협소 및 안전관리 문제 해결과 심신 치유 및 학대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외에 심리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의 질 보장, 의료비 및 지원 인력, 내적 외적 법률지원 자원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17개 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총 25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1개소 당 평균 14.8개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프로그램을 영역별로 구분할 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간의 일관성이 미흡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비해 입소노인을 위한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집단형식으로 외부강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3)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이용 노인 인터뷰 및 분석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 동안 경기도, 충청권, 영남권, 전라권 등 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경험이 있는 노인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여 쉼터 이용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할 8명의 노인(여자 노인 7명, 남자 노인 1명)이며, 연령대는 60대에서 80대를 추천받아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입소경위, 입소생활 과정, 퇴소 후 생활의 경험에 대한 개방형 질문으로 실시하여 녹취와 내용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제안을 탐색할 수 있었다.

첫째, 입소노인에게 쉼터는 혼돈의 순간에 만난 쉼의 장소로 보고 있어 입소노인은 학대피해 등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입소하기 때문에 쉼터는 일차적으로 편안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정서적 개입 등이 필요하며 둘째, 입소 직후 양가감정이 발생하고 있어 처음 맞이할 때부터 입소노인의 상태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며, 입소 직후 양가감정, 즉 갈 데 없이 왔다는 생각과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불안감에 대해 집중적 개입이 중요하다. 셋째, 일상생활을 통한 정서적 개입이 필요한데, 잘 먹고 편안히 잘 수 있는

환경이 정서적 개입의 기본이자 기반이 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적 개입보다 함께 생활하는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가족적 분위기의 정서적 개입이 요구된다. 넷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입소 노인 모두를 대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 진행이 아니라 사례관리 계획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 퇴소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이 높기 때문에 입소와 함께 퇴소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퇴소 후에도 센터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센터가 입소했던 노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지체계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 3.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모델(안) 구상

####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모델(안)의 기본 구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대한 현황자료와 실증연구를 통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모델(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쉼터의 방향성 제고를 위한 이론적 틀, 목적, 실천방법, 그리고 실천단계 등 기본구조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학대피해노인은 학대 과정에서 심리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이러한 심리사회적 결과가 다시금 노인 자신과 환경에 대한 무능력을 초래한다는 점(Lee, *et. al.*, 2009)을 고려해 본다면, 학대를 경험하는 노인의 심리사회적인 문제점을 감소시키고 계속되는 학대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약화시킬 개입 전략으로 임파워먼트가 효과적이다(Chung, *et. al.*, 2007). 따라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모델(안) 개발에서는 임파워먼트의 주요 개념인 힘(power), 억압(oppression), 임파워먼트(empowerment), 탄력성(resilience)의 4가지 개념(Worell & Remer, 2002)과 임파워먼트 실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인 세 가지 차원인 개인적, 대인 관계적, 구조적 측면에서 힘(power)의 획득(Chung, *et. al.*, 2007)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였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대피해노인이 퇴소 후에도 그들이 삶과 생활이 안전하고 안정적이어야 하기에 '새로운 삶의 시작: 안전하고 안정적인 퇴소 후 생활'을 목적으로 두었다. 그리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 입소노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상처를 회복토록 보호해야 하며 학대가 없는 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법 중도(middle way)인 '섬세하고 배려 있는 권위'<sup>3)</sup>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은 학대장소에서 분리되어 심신의 회복과 안정이 절실하며 퇴소 이후 학대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입소노인을 개별화하여 노인의 외적 체계뿐 아니라 내적체계까지 개입하는 노인학대 사례관리 실천(EA\_ISP: Elder Abuse Individualized Service Plan)을 적용하였다. 이외에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목적에 따른 단계별 개입원칙을 제시하여 목적 성취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소부터 퇴소 이후 사후관리까지 실천단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모델(안)에서는 입소 이후 시행되는 개입 단계를 ① 심신안정: 학대로부터 받았던 신체적, 심리적 손상 회복을 위한 심, 음식, 생활지원, 건강검진, 인테이크 진행, ② 새로운 관계: 쉼터라는 새로운 장에서 새로운 관계에 적응, 직원과 타 노인과 관계형성, 정서적 지지, 쉼터생활의 수칙 이해와 수용, ③ 변화의 시작: 개인적 차원에서 우울감과 불안감 등 심리적인 디스트레스 해결 위한 자기이해, 학대에 대해 객관적 통찰, 현재까지의 대처방식 평가, 학대의식교양 교육, ④ 새 삶의 구체화, 강점 및 자원 확보: 퇴소 이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 계획 관련 강점과 자원을 확보, 내적인 역량강화(타인과의 갈등 완화나 문제해결 능력의 증가, 의존성의 감소 등), ⑤ 새 삶

3)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2016)에서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적용한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요소를 학대피해노인에 맞게 수정하였다. 즉, 학대위기에 처한 노인의 복지가 가장 중요함 알기, 학대피해노인의 생애체계의 욕구와 상황의 복잡성 알기, 학대피해노인•학대행위자•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관련자들의 참여와 협업의 중요성 인식하기, 학대지원은 비심판적 원칙에 기초하며 가능성과 임파워먼트를 지향, 학대피해지원자는 조직적, 전문적 지원을 설명, 적용과 법적 요건 등의 절차상 범위에서 돌봄 역할 고려하기 등이다.

의 실천: 퇴소 후 안정적 환경 조성, 재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하는 방법 습득,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호망 구축으로 구성하였다.

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모델(안)에 대한 운영 구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모델(안)과 관련하여 앞에서 제시한 기본구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쉼터 운영체계 또한 안정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대한 현황자료와 실증연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운영 구조에 대한 주요 논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법정시설로 설치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그 운영주체를 독립 시설로 설치·운영하는 형태와 현재처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 간에 장단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모델(안)에서는 2개의 운영주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례관리 수행 역할과 관련하여, 입소노인의 사례관리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역할로 하는 것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역할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델(안)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현재 단순 보호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입소노인은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쉼터의 사회복지사도 사례관리자로 참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의 쉼터 인력으로는 사례관리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타 운영 관련하여 주요 사항은 첫째, 입소노인과 관련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입소노인은 ADL 평가에 의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으로 제한해야 하며, 노인성 질환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은 지역별 지정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현 입소 기간(3개월 +1개월) 내 문제해결이 어려운 사례 발생할 수 있어 대안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목적에 따른 개별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현재 실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학대피해노인 쉼터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프로그램과 일관성 및 연계성을 제시하기 어

려우며 입소노인의 개별화된 욕구에 맞춰 기획 또는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노인별 욕구에 부합하는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입소노인이 퇴소 후에 학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입소 노인 중심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요양보호사 근무체계 및 역할 제고와 관련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입소노인의 식사 만족도가 높은 반면 식사준비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부담이 높고, 요양보호사의 역할 및 근무체계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만을 요구하는 현 체계에 대해 간호조무사 등의 타 자격증 개방 여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다섯째, 안전한 보호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의료적 안전을 위해 방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고, 응급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파출소 등과 지속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안전한 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3)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모델(안) 도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모델(안)은 앞서 논의 내용에서 제시한 운영주체와 입소노인의 사례관리 역할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설치 기준, 운영방법, 서비스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모델(안)은 사례관리 중심과 생활지원 및 보호만을 책임지는 돌봄 중심, 그리고 운영주체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인지 유무에 따른 독립형과 위탁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한 축은 쉼터 운영의 독립성 여부, 다른 한 축은 쉼터 사례관리 책임 여부로 하여 모델(안)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것인지 유무에 따라 '위탁형 쉼터'와 '독립형 쉼터'로 구분할 수 있다. '위탁형 쉼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일종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산하기관의 형태를 가지며, 지도감독을 받는다. 반면 '독립형 쉼터'는 비영리 법인이 인가신청을 통

해 설치 및 운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독립적 위치와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 학대피해노인의 사례관리 참여 유무에 따라 ‘사례관리 중심 쉼터’와 ‘보호 중심 쉼터’로 구분할 수 있다. ‘사례관리 중심 쉼터’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사례관리를 공동 수행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종사자도 사례관리의 주요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면, ‘보호 중심 쉼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입소노인의 숙식 및 쉼터 생활보호 중심만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위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유형 기준을 따라 운영의 독립성 여부를 한 축으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사례관리 참여 여부를 또 다른 한 축으로 놓으면 다음과 같이 ‘사례관리 중심의 독립형 쉼터’, ‘사례관리 중심의 위탁형 쉼터’, ‘보호 중심의 독립형 쉼터’, ‘보호중심의 위탁형 쉼터’ 등 4개의 학대피해노인 쉼터 유형으로 구분된다(Figure 1).

4개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모델(안)을 설명하면 먼저 ‘사례관리 중심의 독립형 쉼터’는 노인보호전문기

관 외 타 법인에 의해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독립적 위치와 운영을 보장받으며, 입소노인의 사례관리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공동책임(단, 주 사례관리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임)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 모델(안)의 장점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의 독립성과 발전 방향 모색을 확장하기 자유로우며 다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평한 입장에서 상호소통 및 협력관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연계를 통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기능강화가 가능하다. 반면 단점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사례관리 진행 과정에서 갈등 시 중재역할이 부재하며, 입소 및 퇴소 결정, 입소생활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담 증가, 시설장의 능력과 태도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발전 수준의 격차 등의 단점도 있다.

‘사례관리 중심의 위탁형 쉼터’는 ‘사례관리 중심의 독립형 쉼터’와 사업내용은 유사하나 시·도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장점으로 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면서도 입소 및 퇴소 인가, 지역사회 연

<p style="text-align: center;"><b>Independent Shelter Based on Case Managemen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peration method:</b> Independent Operations from Elder Protection Agency</li> <li>• <b>Case Management:</b> Elder Protection Agency+ Shelter</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Independent Shelter Based on Caring</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peration method:</b> Independent Operations from Elder Protection Agency</li> <li>• <b>Case Management:</b> Elder Protection Agency</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Consignment Shelter Based on Case Managemen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peration method:</b> Dependent Operations from Elder Protection Agency</li> <li>• <b>Case Management:</b> Elder Protection Agency+ Shelter</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Consignment Shelter Based on Caring</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peration method:</b> Dependent Operations from Elder Protection Agency</li> <li>• <b>Case Management:</b> Elder Protection Agency</li> </ul>

Figure 1. The model types of shelter for elderly abuse

계에 대한 부담감 없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생적인 관계 유지 및 업무의 명확성 유지가 가능하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를 겸직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발전 방향 모색에 한계가 있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관계에서 중립성 및 경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호 중심의 독립형 쉼터’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외 타 법인 등에 의해 운영하는 형태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독립적 위치와 운영을 보장받으나 입소노인의 사례관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입소노인의 생활지원에 주력하는 것이다. 장점으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입소노인 생활지원에만 주력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역할이 명확히 분리, 동등한 관계로 상호소통 및 협력관계 유지가 가능하다. 반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소통 및 협력의 미비하고 갈등 시 중재역할이 부재할 수 있다.

‘보호 중심의 위탁형 쉼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형태를 가지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숙식 및 생활지원 관련하여 입소노인의 심과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EA\_ISP 수립에 따라 요구하는 서비스의 보조적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다. 장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이라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 및 자원 연계 가능하고 입소노인 생활지원에만 주력함으로써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역할이 명확히 다르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와 비교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종사자의 종속적 역할 부여로 직무에 대한 갈등을 가질 수 있다.

### III.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모델(안) 평가

#### 1. 조사의 개요

제시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4개 모델(안) 중 어떤 모델(안)이 가장 적합한지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학대피해노인 쉼터 모델(안) 4개에 대해 중요도

및 가중치를 평가 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제시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AHP는 주어진 대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방법 중 하나로 단순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의사결정자의 가치체계를 쉽게 추출할 수 있고, 주어진 대안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판단하여 중요도 또는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ong & Lee, 2013). 또한 AHP는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나 직관 등이 결과에 반영되는 특성이 있어 정량적 평가기준과 정성적 평가기준까지 고려되는 의사결정 방법이라 할 수 있다(Chung & Kim,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실무 및 연구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학대피해노인 쉼터로서의 효과성, 효율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그리고 종합성 등 5개 요인을 쌍대비교방식 좌우 9점 척도를 적용하여 가중치 평정 질문지를 개발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실무지식과 전문적 경험이 있는 집단의 규모는 집단의 특성이 동질적일 때 10명 이내에도 충분하다고 제시(Kwon, 2008)하고 있어 본 조사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관장 또는 중간관리자, 노인학대 관련 연구자 총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응답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Division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
Gender	male	2	13.3
	female	13	86.7
Age	under 40 years old	3	20.0
	41~50 years old	9	60.0
	over 51 years old	3	20.0
Job	Elder Protection Agency Director	4	26.7
	Elder Protection Agency Staff	5	33.3
	Professor	3	20.0
	Researcher	3	20.0
Speciality Career	under 5 years	3	20.0
	5~10 years	6	40.0
	over 10 years	6	40.0

2. 분석결과

1) 효과성

주요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쉼터모델은 무엇인지 조사한 효과성은 조사결과 1순위(0.454)는 ‘사례관리 중심의 위탁형 쉼터’, 2순위(0.263)는 ‘사례관리 중심의 독립형 쉼터’, 3순위(0.187)는 ‘보호 중심의 위탁형 쉼터’, 4순위(0.096)는 ‘보호 중심의 독립형 쉼터’ 순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효과성 면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쉼터를 위탁하여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CI(일관성 지수)가 0.1보다 높아 효과성 요인은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 Priority of effectiveness on 4 shelter models for the abused elderly

category	weight	ranking
• Independent Shelter Based on Case Management	0,263	2
• Consignment Shelter Based on Case Management	0,454	1
• Independent Shelter Based on Caring	0,096	4
• Consignment Shelter Based on Caring	0,187	3
CI	0,375	

2) 효율성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에 대한 효율성 분석 결과는 1순위(0.455) ‘사례관리 중심의 위탁형 쉼터’, 2순위(0.257) ‘보호중심의 위탁형 쉼터’ 3순위(0.169) ‘사례관리 중심의 독립형 쉼터’, 4순위(0.119) ‘보호 중심의 독립형 쉼터’ 순으로 도출되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의 효율성은

Table 3. Priority of efficiency on 4 shelter models for the abused elderly

category	weight	ranking
• Independent Shelter Based on Case Management	0,169	3
• Consignment Shelter Based on Case Management	0,455	1
• Independent Shelter Based on Caring	0,119	4
• Consignment Shelter Based on Caring	0,287	2
CI	0,061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례관리 중심을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보호 중심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것도 그 다음으로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효율성 요인은 CI는 0.1보다 낮아 일관성 있는 결과를 확보하고 있다.

3) 전문성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모델 중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1순위(0.499) ‘사례관리 중심의 위탁형 쉼터’, 2순위(0.271) ‘사례관리 중심의 독립형 쉼터’, 3순위(0.133) ‘보호 중심의 위탁형 쉼터’, 4순위(0.097) ‘보호 중심의 독립형 쉼터’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례관리 중심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효과성 요인의 CI는 0.1보다 높아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Table 4 Priority of expertise on 4 shelter models for the abused elderly

category	weight	ranking
• Independent Shelter Based on Case Management	0,271	2
• Consignment Shelter Based on Case Management	0,499	1
• Independent Shelter Based on Caring	0,097	4
• Consignment Shelter Based on Caring	0,133	3
CI	0,337	

4) 현실성

조사대상자에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4개 모델(안)을 실제 적용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델이 무엇인지 질문한 현실성은 분석 결과, 1순위(0.487) ‘사례관리 중심의 위탁형 쉼터’, 2순위(0.302) ‘보호 중심의 위탁형 쉼터’ 3순위(0.118)의 ‘사례관리 중심의 독립형 쉼터’, 4순위(0.093) ‘보호 중심의 독립형 쉼터’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관련 실제 가능한 모델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례관리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호 중심으

로 운영하는 것이 그 다음 순위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 요인의 CI는 0.1보다 낮아 일관성도 확보되었다.

Table 5 Priority of practicality on 4 shelter models for the abused elderly

category	weight	ranking
• Independent Shelter Based on Case Management	0,118	3
• Consignment Shelter Based on Case Management	0,487	1
• Independent Shelter Based on Caring	0,093	4
• Consignment Shelter Based on Caring	0,302	2
CI	0,093	

5) 종합 평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효과성, 효율성, 전문성,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4개 모델(안) 중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 분석 결과, 1순위(0.504) ‘사례관리 중심의 위탁형 쉼터’, 2순위(0.213)의 ‘사례관리 중심의 독립형 쉼터’, 3순위(0.195) ‘보호 중심의 위탁형 쉼터’, 4순위(0.088) ‘보호 중심의 독립형 쉼터’ 순으로 도출되었다. 전문가들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례관리 중심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효과성 요인의 CI는 0.1보다 높지만 0.2보다 작을 경우도 상당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Choi, Kim, & Ryu, 2012)고 보기에 종합 평가 요인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Table 6 Priority of comprehensive on 4 shelter models for the abused elderly

category	weight	ranking
• Independent Shelter Based on Case Management	0,213	2
• Consignment Shelter Based on Case Management	0,504	1
• Independent Shelter Based on Caring	0,088	4
• Consignment Shelter Based on Caring	0,195	3
CI	0,19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4개 모델(안)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그리고 종합적 평가를 기

준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 4개 모델(안) 중 ‘사례관리 중심의 위탁형 쉼터’ 모델은 효과성, 효율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그리고 종합적 평가 모두 우선순위에서 1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쉼터 모델로 타당하다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성과 전문성 요인은 CI가 0.2보다 높아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지향 또는 궁극적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며, 쉼터의 운영 및 인력체계의 한계, 시설 기준 및 지원의 미비로 입소노인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제한점이 있고 최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 근거 법안이 시행되면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제고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모델(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거쳐 학대피해노인 쉼터 모델(안)을 4개의 유형으로 구상하였고, 이 4개의 유형 중 가장 적합한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 AHP를 적용하여 최종 ‘사례관리 중심의 위탁형 쉼터’ 모델이 적합한 모델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모델은 기존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단점 및 운영 평가를 기반으로 하였기에 실제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한계 및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사료되기에 이는 모델을 적용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 적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행해야 할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수행하는데 있어 이론적 기반과 지향해야 할 목적을 도출하고 단계적 전략을 제시하는 구조화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모델을 정립하였으며, 실천하는 방법으로 사례관리를 적용하는 등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

최종 도출된 ‘사례관리 중심의 위탁형 쉼터’ 모델의

적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하면, 먼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와 관련하여 첫째, 노인보호전문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가 필요하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설치하는 것은 현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시·도별로 1개소(2018년 현재 총 18개소) 정도만 설치되어 있어 시·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쉼터를 이용하는 형태이다. 이로 인해 위탁 운영하지 않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는 지리적 거리 및 쉼터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의 한계가 있음이 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의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사례관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현 모델에서는 이 문제점이 더 부각될 수 있다. 학대피해노인의 사례관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바, 노인보호전문기관 별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하는 정책방향이 고무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인력의 사례관리자 수행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도 일정부분 사례관리를 수행함에 따라 사례관리 담당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일한 수준의 사례관리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사례관리자의 채용조건, 보수체계, 인력관리 및 업무수행 관련 교육 등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간의 순환보직체제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사례관리 전담 인력 배정 필요하다. 현재 학대피해노인 쉼터의 인력기준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겸직 가능),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1명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와 겸직 가능)으로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담당업무<sup>4)</sup>가 사례관리 지원 외

다양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적절한 모델로 도출된 ‘사례관리 중심의 위탁형 쉼터’는 현재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인력배치와 유사하나, 시설장과 중간관리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겸직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례관리 전담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을 차별화해야 한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실천구조 적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의 궁극적 목적인 ‘안전하고 안정적인 퇴소 후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5단계의 전략(심신안정, 새로운 관계, 변화의 시작, 새 삶의 구체화, 새 삶의 실천)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 한계 및 예외 상황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노인의 내부 및 외부 환경으로 인해 입소기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서 개별 사례관리 계획(EA\_ISP)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의 목적과 실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천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EA\_ISP를 적용하는 구체적 업무수행지침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사례관리자의 내적체계 접근을 위한 방법 및 기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학대피해노인 쉼터 모델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위탁운영 하에 입소노인의 퇴소계획과 실천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사례를 관리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입소노인의 외적 환경에 초점을 두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원활한 사후관리 체계를 조성한다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는 입소노인의 회복과 변화의 경험 그리고 안정된 퇴소 후의 준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사례관리자는 입소노인의 내적체계 안정화에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담당 업무는 쉼터 입소 및 이용 노인에 대한 쉼터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지원, 행정 및 회계 관련 업무 지도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력하기 위한 실천기술과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노인의 발달상의 이해뿐만 아니라 노인상담 관련 자격 및 경험이 필요하며, 관련 교육의 기회와 슈퍼비전을 통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사례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동사례관리 효과성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사례관리 기능 신설과 강화에 따라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수정이 필요하다. 즉,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노인의 내적·외적 체계의 원활한 개입을 위해 공동사례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입소노인의 발견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진행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도출한 ‘사례관리 중심의 위탁형 쉼터’를 실제 적용함에 있어 서비스 체계도와 서비스 진행도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보다 구체적인 실제 적용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보건복지부(2017)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발전모델 개발’ 연구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수정하는 과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References

Bang, Jun Ho. 2018. *Korea Becomes an Aging Society, 7 years ahead of Japan*. Hankyoreh.

Choi, Jong Chul, Dong Joo Kim, and Jeong Jin Ryu. 2012. Analysis on Prioritizing Projects at KEAD.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6(1): 113-137.

Chung, Hye Jin and Kyung Won Kim. 2016. An AHP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Criteria for Registration in Foreign Language Cours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8): 723-745.

Chung, Soon Dool, Kyung Mee Kim, Sun Young Park, Hyung Won Park, Hye Ji Choi, and Hyun Ah Lee. 2007. *Empowerment in Social Work*. Hakjisa.

Kwon, Tae Il. 2008. Study on Drawing Priority of the Influence Factors of Tourist Resort Remodeling Business: Delphi Technic & Analytic Hierarchy Process. Sejong University of Doctoral Thesis.

Lee, Eun Kyung. 2012. Study on the Shelter-experiences of 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Formation of Feminist Identity.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Lee, Young Boon, Mee Hye Kim, Soon Dool Chung and Kum Ju Kwon. 2009. Psycho-emotional Characteristics of Abused Elders: A Qualitative Research Focused on the Perception of Professiona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3): 1257-1272.

Lee, Young Kook. 2002. Managem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Measurement of the Resting Place for the Homeless.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Ministry Health and Welfare. 2015. 2014 Report on the Status of Abuse of Elderly in Korea.

Ministry Health and Welfare. 2016. 2015 Report on the Status of Abuse of Elderly in Korea.

Ministry Health and Welfare. 2017. 2016 Report on the Status of Abuse of Elderly in Korea.

Ministry Health and Welfare. 2018. 2017 Report on the Status of Abuse of Elderly i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2016.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vol.1)*.

Song, Keun Won and Young Lee. 2013. Re-scaling for Improving the Consistency of the AHP Method. *Social Science Research*. 29(2): 271-288.

*The Aged Welfare Act*(Revised in 2017). 2017.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Aged Welfare Act*(Revised in 2017). 2017.

Worell, J. and P. Remer. 2002. *Feminist Perspectives in Therapy*. John Wiley & Sons.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Homepage. <http://noinboho.or.kr>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http://www.riss.kr>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권태일. 2008.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의 영향요인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 델파이 기법(Delphi)과 계층적 의사결정 방법(AHP) 적용.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인복지법(2017 개정). 2017.
- 노인복지시행규칙(2017 개정). 2017.
- 방준호. 2018.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일본보다 7년 빨라. 한겨레. 2018년 8월 27일자
- 보건복지부. 2015.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2016. 201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2017. 2016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2018..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송근원, 이영. 2013. AHP의 일관성 향상을 위한 척도 재구성. 사회과학연구. 29(2): 271-288.
- 이영국. 2002. 노숙인 쉼터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분, 김미혜, 정순돌, 권금주. 2009.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정서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1(3): 1257-1272.
- 이은경. 2012. 가정폭력을 벗어난 여성의 쉼터 경험과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6.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기반 연구 I: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 정순돌, 김정미, 박선영, 박형원, 최혜지, 이현아. 2007. 사회복지와 임파워먼트. 학지사.
- 정혜진, 김정원. 2016. AHP를 활용한 대학생의 수강신청 기준에 관한 연구-교양외국어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8): 723-745.
- 최종철, 김동주, 류정진. 2012. AHP를 이용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우선 순위분석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6(1): 113-137.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noinboho.or.kr>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

Received: Oct. 8, 2018 / Revised: Nov. 6, 2018 / Accepted: Nov. 15, 2018

## AHP를 이용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모델 개발

**국문초록** 본 연구는 법정시설로 제도화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모델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모델(안)을 제안하기 위해 먼저 기존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규정 및 현황을 조사하고, 쉼터 방문과 종사자 인터뷰, 쉼터 17개소 전수 설문조사, 쉼터 입소 경험이 있는 노인들을 인터뷰한 자료를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새로운 모델에 대한 논의사항을 도출해 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쉼터 사례관리 참여 여부와 쉼터 운영의 독립성 여부라는 두 축으로 한 4개의 모델, ‘사례관리 중심의 독립형 쉼터’, ‘사례관리 중심의 위탁형 쉼터’, ‘보호 중심의 독립형 쉼터’, ‘보호 중심의 위탁형 쉼터’를 구상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4개의 모델 중 가장 적절한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실무 및 연구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효율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종합평가 측면에서 AHP기법을 통해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사례관리 중심의 위탁형 쉼터’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선정되었다.

주제어 : 노인학대, 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AHP

**Profiles** **Kum Ju Kwon** : She received her B.A., M.A., Ph.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n 2007. She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Seoul Cyber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06. She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is elderly welfare, elder abuse, the rights of the elderly. She has published 25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3 books, including co-author(kkj@iscu.ac.kr).

**Hye Sun Kim** : She received her B.A., M.A., Ph.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S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a director of Addiction and Trauma Recovery Institute i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er interesting areas of research and education are case management, mental health, addiction & trauma recovery, family therapy(welcom-kim@kangwon.ac.kr).